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1.6(월)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1. 6.(월)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과장	윤성혁 과장(044-203-4330)	담 당 자	김성철 사무관(044-203-4334) 배명균 주무관(044-203-4338)

'19년 조선업 수주, 2년 연속 세계1위

- '19년 全 세계 발주물량의 37.3%인 943만 CGT 수주, 하반기 집중수주로 중국 역전 -

- '20년에도 대형 엘엔지(LNG) 프로젝트 발주로 업황은 지속 개선 전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년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全 세계 선박발주 2,529만CGT 중 우리나라가 943만 CGT를 수주**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출처 : 클락슨 리서치(Clarkson Research,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 2019년 상반기,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 부진하였지만 **하반기 집중 수주를 통해 2년 연속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유지하였다.

* 19년 수주실적(만 CGT) : (1~6월) **韓 358**, 中 468 (7~12월) **韓 585**, 中 387

- 특히 **'19.12월**에는 전세계 대형 LNG 운반선 발주물량(11척)을 모두 수주하는 등 **글로벌 발주 307만 CGT중 우리나라가 174만 CGT**(점유율 56.7%, 연중 최대치)**를 수주**하였다.

<'19년 수주금액, 수주량, 수주잔량>

구 분	1위	2위	3위	4위
수주량(만CGT)	**한국(943)**	중국(855)	일본(328)	이탈리아(114)
수주금액(억불)	**한국(223)**	중국(203)	이탈리아(75)	일본(61)
수주잔량(만CGT)	중국(2,693)	**한국(2,260)**	일본(1,191)	이탈리아(416)

<'19년 월별 수주실적>

(단위: 만CGT, 억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년 누계	'19년 억불
全 세계 발주		4,313	1,342	2801	3,108	278	204	311	170	185	154	169	148	197	200	206	307	2,529	724
수주	한국	1,095	222	761	1,308	73	75	44	37	68	61	55	84	69	140	63	174	943	223
	중국	1,335	446	1,168	1,000	124	42	134	84	37	47	37	57	97	26	63	107	855	203
	일본	1,316	239	290	526	44	59	28	26	70	31	17	0	10	10	13	20	328	61

○ 선종별로 보면, **대형 LNG운반선(174k) 51**척 중 48척(94%), **초대형 유조선(VLCC)* 31**척 중 18척(58%), 초대형컨선 36척 중 22척(61%)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보였다.**

* VLCC(Very Large Crude Carrier) : 20만 dwt 이상 초대형 유조선

□ '19년 조선 건조량은 **951만 CGT로 전년대비 23.1% 증가**하였다.

○ 건조량은 '16년 수주절벽 영향으로 **18년 최저(772만 CGT)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수주 증가로 **19년 2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조선사 건조량 추이(만CGT,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9년 합계
1,269 (4%↑)	1,236 (3%↓)	1,057 (14%↓)	772 (27%↓)	280 (8.1%↓)	232 (65.3%↑)	283 (58.3%↑)	156 (4.9%↑)	**951 (23.1%↑)**

* 수주-생산간 시간차는 약 1~2년 소요 추정

□ 조산업 고용도 건조량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18.8월 10.5만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19.7월 11만명대를 회복하였고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조선업 고용(고용보험 피보험자, 만명) : (15말)18.8 → (17말)11.4 → (18.8) 10.5 → (18말)10.8 → (19.8)11.0 → (19.11)11.1

□ 산업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글로벌 발주가 부진한 상황에서 엘엔지(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VLCC) 등 주력 선종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보여준 기술력과 품질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 했다.

□ **클락슨**은 '20년 글로벌 발주가 19년 보다 대폭 증가한 **3,850만 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19.9월 Forecast Club)하고 있고, 20년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조선업황은 지속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 우리 조선사 들이 친환경, 스마트화라는 조선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선박, 스마트 한국형 야드 등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철 사무관(☎ 044-203-43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